

SPORTS

2025년 4월 22일 화요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광주 장애인체육 후원금 전달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2·6·7지역이 지역 간 화합과 봉사의 정신 실천하고, 광주 장애인 체육 선수 육성에 기여하고자 지정 후원금을 전달했다.

21일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최근 경암근린공원에서 열린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2지역·6지역·7지역 소동 한마당 체육대회'에서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휠체어펜싱 경기용품 구입을 위한 후원금 200만원을 받았다.

이번에 전달되는 후원금 총 200만원은 제7지역 5지대(광주인재라이온스클럽, 광주하이원라이온스클럽) 100만원, 광주상록라이온스클럽 50만원, 제2·6·7지역 합동 봉사금 50만원이 모여 마련됐다.

지정후원 선수는 광주시장애인펜싱협회 소속 박현재 선수(29·한국전력공사)다. 그는 지난해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남자 플러레·사브르 단체전 금메달 2개와 에페·플러레 개인전 은메달 2개를 획득하며 광주를 펜싱 종합 1위로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한 바 있다. 현재 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핵심 선수이기도 하다.

이번 후원 전달을 주관한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제7지역 위원장 박봉주 라이온(임석 L.C)은 "이번 후원금 전달은 지역사회에 나눔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와 후원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라이온스가 되겠다"고 전했다.

한상득 광주시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장애인 체육 선수들을 위해 함께해 주신 국제라이온스협회 355-B1지구 2·6·7지역 임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광주시장애인체육회도 라이온스클럽과 꾸준히 소통하며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제라이온스협회는 '자유, 지성, 우리 국가의 안전 (Liberty, Intelligence, Our Nation's Safety)'이라는 슬로건과 '우리는 봉사한다(We Serve)'라는 모토 아래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사회봉사 단체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2연속 위닝시리즈’ KIA, 호랑이 포효 이어간다



22~24일 대구 삼성전...25~27일 광주 LG전
11승 12패 리그 6위...마운드·타선 반등 기대

2연속 위닝 시리즈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한 KIA타이거즈가 이번 주 호랑이 포효를 이어간다. KIA는 지난주 주중 kt위주에 위닝시리즈를 거둔 뒤 주말 두산베어스에도 위닝시리즈를 달성했다. 그 결과 11승 12패 승률 0.478를 기록해 승패 마진은 -1로 줄었고, 순위는 6위로 뛰어올랐다. 한 때 최하위권에 머물렀으나 지난주 4승을 추가하면서 반등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선두권과의 격차도 확실히 좁혀졌다. 1강 LG트윈스와는 7.0게임차지만, 2위 한화(5.0게임차)·3위 kt(5.5게임차)·4위 롯데(5.5게임차)와는 불과 2.0~1.5게임차 안이다.

KIA는 이번 주 주중 리그 5위 삼성(6.5게임차)과, 주말 단독 선두 LG와 경기를 치른다. 순위 분수령인 이번 주 경기에서 좋은 결과를 만든다면 단번에 최상위권으로 치고 갈 수도 있다.

분위기 또한 좋다. 그동안 컨디션 난조를 보여왔던 불펜진이 안정감을 되찾았기 때문이다. 지난주 KIA의 불펜 평균자책점은 2위(2.42)를 기록했고, 구원 투수들이 3승 6홀드를 챙겼다.

먼저 필승조 전상현이 상승세다. 시즌 초반에는 부진했지만 최근 5경기 연속 비자책 행진을 펼치며 팀 승리를 지키고 있다.

최지민 또한 13경기 1승 4홀드 평균자책점 1.64를 기록하며 든든한 투구를 선보이고 있다. 토미존 수술로 시즌을 조기에 마감한 박도규의 빈자리를 확실히 메워주는 경기력이다.

조상우 역시 13경기 2승 1패 6홀드 평균자책점 1.69로 우수한 성적표를 작성했다. 시즌 초반 잦은 실점과 구위 약화로 걱정이 있었지만, 현재 7~8회에 등판해 팀 승리를 견인하고 있다. 천천히 구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그가 완벽한 컨디션을 찾았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클로저’ 정해영은 10경기 1승 2패 6세이브를 기록, 2점대 평균자책점(2.61)으로 회복했다.

타선도 분전하고 있다.

KIA는 지난 주 팀 타율 7위(0.212)에 위치했다. 안타 41개(7위), 홈런 4개(5위), 출루율 0.301(7위), OPS(출루율+장타율)도 0.633으로 7위에 올랐다.

최근에는 리드오프 박찬호의 상승세가 눈에 띈다. 박찬호는 지난주 6경기에서 24타수 9안타 1타점 4득점 타율 0.375로 맹활약했다. 특히 지난 20일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5타수 4안타 2득점으로 원맨쇼를 펼쳤다. 이날 KIA는 그의 활약에 힘입어 6-2 승리를 거머쥐었다.

최원준도 회복세에 있다. 그는 지난 15일 kt와의 경기 7회말 상대 초구 148km 직구를 그대로 받아쳐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포를 터트렸다. 0-0으로 균형을 이뤘던 이날 경기는 이 흐름으로 승부가 기울었다. 또 19일 두산과의 경기에서는 4타수 3안타 3타점을 몰아쳤고, 6회초 2사 2·3루 상황 때려낸 최전 안타가 결승타가 됐다.

‘해결사’ 최형우는 21경기 79타수 22안타 3홈런 9타점 타율 0.278로 꾸준히 팀 타선을 이끌고 있다. 최형우는 지난 20일 두산과의 경기에서 7회초 2사 1·3루 상황에서 결승타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투·타 모두 회복세에 있는 상황에서 KIA는 주

중 경기를 삼성과 치르게 된다.

삼성은 현재 12승 12패 승률 0.500으로 리그 5위에 위치했다. 평균자책점은 4.31로 중위권(5위)이다. 타율도 5위(0.244), 출루율 5위(0.339), OPS 5위(0.712) 등 모두 KIA를 웃돌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만날 삼성은 최원태를 15일 선발로 내보낸다. 이에 KIA는 김도현을 선발로 투입한다.

삼성과의 일정을 마친 KIA는 주말 광주에서 LG를 상대한다.

KIA가 삼성과 LG를 차례로 꺾고 선두권 도약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신한 Bank KBO리그 중간 순위 (21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LG	23	18	5	0	0.783	0
2	한화	25	14	11	0	0.560	5
3	KT	23	12	10	1	0.545	5.5
4	롯데	25	13	11	1	0.542	5.5
5	삼성	24	12	12	0	0.500	6.5
6	KIA	23	11	12	0	0.478	7
7	SSG	21	10	11	0	0.476	7
8	두산	22	9	13	0	0.409	8.5
9	NC	19	7	12	0	0.368	9
10	키움	25	8	17	0	0.320	11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 박승우, 전국대회 ‘4관왕’

연맹회장기서 공기총 R4·R5 부문 모두 석권

한국 장애인사격 간판 박승우(광주시청)이 전국대회 4관왕에 올랐다.

박승우는 최근 창원국제사격장에서 개최된 '2025 연맹회장기 전국장애인사격대회'서 공기총 입사(R4) 개인·단체전 금메달, 공기총 복사(R5) 개인·단체전에서 모두 우승하며 금메달 4개를 목에 걸었다.

박승우는 공기총 입사(R4) 개인전에서 254.4점을 획득, 서훈태(경기도장애인체육회·253.6점)를 꺾고 금메달을 차지했다. 박승우의 이번 기록은 이명호(경주시청)가 지난해 '제4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달성한 대회신기록(254.1점)을 넘어선 점수다. 이로써 다가오는 '2025 창원 장애인국제사격월드컵대회'의 전망을 밝게 했다. 박동안(광주시청)은 R4 개인전 동메달을 추가했다.

박승우는 공기총 복사(R5) 개인전에서도 255.1점으로 전영준(대전) 253.8을 꺾고 금메달을 따냈다.

이러 공기총 입사 단체전(R4) 역시 1897.7점으로 대전(1889.2점)과 경기(1889.1점)를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다.

또 공기총 복사 단체전(R5)에서 1906.0점으로 경기도(1904.7점)와 대전(1901.9점)을 제치고 금메달을 거머쥐었다.

이후 화약총 복사 단체전(R9)에서는 경기도(1850.3점)에 이은 1836.5점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개인전(R9)에서는 임주연(광주시청)이 동메달을 건졌다.

이로써 광주시청 장애인사격팀은 이번 대회를 금 4, 은 1, 동 2개로 마무리했다.

박승우는 "대회 마지막 날 컨디션 난조로 화약총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이것 역시 경험이라고 생각한다"며 "컨디션 관리에 최선을 다해 다음 달에 개최되는 창원 월드컵대회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2025 연맹회장기 전국장애인사격대회'서 공기총 입사(R4) 개인전 금메달을 차지한 박승우(가운데)와 동메달을 따낸 박동안(오른쪽 첫 번째)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시장애인체육회

‘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 폐막...도민 열정 빛났다

순천 종합우승 ‘2연패’...2위 여수·3위 광양
“전남 체육 저력 확인”...다음 개최지는 구례

200만 전남도민이 스포츠로 하나 된 '제64회 전남도체육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꿈을 안고 장성으로, 전남을 품고 세계로’라는 구호 아래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장성군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21일 홍길동체육관에서 열린 폐회식을 끝으로 나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다.

장성군 창군 이래 처음으로 열린 이번 대회는 전남 22개 시·군에서 총 6950명(선수 4605명, 임원 2345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축구, 육상 등 23개 종목에서 열린 경쟁을 펼쳤다.

대회 마지막날 열린 폐회식은 전남체전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성적발표, 종합시상, 격려사 및 폐회사, 대회기 및 패네티기 이양, 차기 개최지 홍보, 환송사, 폐회선언, 성화 소화 순

으로 진행됐다.

이번 대회 종합우승은 순천시 선수단이 차지. 지난해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다. 준우승은 여수시가, 3위는 광양시가 각각 차지했다. 개최지인 장성군은 종합 4위에 올랐다.

대회 결과 최우수선수상은 사격 종목에서 600점 만점(총전기록 599점)을 기록한 김해운(여수시)과 육상 종목 높이뛰기에서 1m95(총전기록 1m89)를 기록한 어재혁(무안군)이 공동 수상했다.

모범선수단상은 화순군 선수단, 모범종목단체상은 전남수영연맹, 장려상은 곡성군·해남군·진도군 선수단, 특별상인 화합상·질서상·우정상은 무안군·영암군·구례군이 수상했다.

이어 지난해 대비 성적이 향상된 시·군에 주어

지는 성취상은 장성군, 고흥군, 보성군에게 돌아갔다.

특별봉사상은 개최지 장성군 자원봉사자들을 대표해 (사)해병대전우회 장성군지회가 받았다.

명장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선수들이 보여준 뜨거운 열정과 투지는 전남 스포츠의 미래를 열어가는 힘찬 동력”이라며 “전남도는 선수들이 마음 편히 훈련에 전념해 최고의 기량으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껏 응원하겠다”고 전했다.

송진호 전남도체육회장은 “선수들의 땀과 투지, 장성군과 자원봉사자들의 투철한 봉사정신이 있었기에 이 감동의 무대를 함께할 수 있었다”며 “이번 대회를 통해 전남 체육의 저력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회기와 패네티기가 장성군에서 차기 개최지인 구례군에 이양됐다. 이에 내년 제65회 전남도체육대회는 구례군에서 개최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장상=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